
기획논문

1905년 러시아혁명과 동아시아 담론 형성

어느 시대든 고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을 테지만, 근대처럼 그 연동이 동시적이고 광범위했던 적도 없을 것이다. 변화는 늘 진행 중이고, 그 변화의 축적 위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난다. 1905년은 동아시아에서 획기의 해이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도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해였다. 한반도는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 특집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동아시아가 ‘혁명’을 둘러싸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조망했다. 이 획기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은 러일전쟁이지만, 본 특집이 주목한 것은 그 러일전쟁에 가려져 있던 1905년 러시아혁명이다.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담론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혁명’은 ‘revolution’의 번역어로서, 근대적 진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념이자 운동이었다. 필연적으로 자유, 입헌, 민주, 평등 등 핵심적인 근대적 가치들과 연동되었고, 각 나라의 개혁운동세력은 개혁의 정당화, 개혁 실현의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고민하면서 분기하였다.

이 특집에는 네 편의 글을 담았다. 첫 번째 글은 이정희의 『일본 아시아주의자의 1905년 러시아혁명 및 중국혁명 인식-잡지 『혁명평론』의 검토를 중심으로』이다. 『혁명평론』은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일본인이 창간한 잡지로, 러시아혁명에 고무되어 중국의 혁명 기도를 주요 목적으로 한 독특한 것이었다. 편집진의 주요 멤버들은 메이지 시기 일본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진보에 우월감을 내면에 품고, 구미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시아 연대를 외치던 아시아주의자들이었다. 『혁명평론』은 저항을 이야기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침략주의, 팽창주의의 성격을 노출하는 아시아주의의 독특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잡지였다.

이혜경의 『양계초와 ‘혁명’개념의 전변-『청의보』·『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는 당시 중국의 대표적인 계몽운동가로서 입헌군주를 지향했던 양계초(梁啓超, 1873~1929)의 혁명 개념을 다뤘다. 양계초는 초기에는 혁명을 진화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혁명과와의 대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혁의 방법으로서 ‘혁명’을 노골적으로 배제해간다. 진화의 관점에서 혁명을 긍정하던 양계초는 역시 진화의 논리로 혁명을 부정한다. ‘혁명’은 역성혁명이거나 농민의 난으로서, 진화와 관계없었던 중국의 구태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가 ‘혁명’을 배제하면서 펼치는 논리는 한편에서 혁명이라는 정체변화의 방식에 대해 유학적 배경을 갖는 지식인이 품을 수 있는 파토스를 보여준다.

황재문의 『『음청사』에 나타난 ‘러시아-혁명’ 이해의 양상』은 조선의 온건 개화파 관료인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러시아와 러시아혁명에 대한 이해를 다뤘다. 『음청사』는 그가 관직생활을 하던 때부터 아관파천으로 유배생활을 하는 시기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보고 들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요약하거나 인용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당시 러시아혁명에 관한 기사가 김윤식과 같은 독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준다. 김윤식은 러시아혁명을 전쟁 패배의 결과로 나타난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혁명’에 대한 이해나 고민으로 이어가지는 않았다.

마지막 글은 임경화의 『러일전쟁 전후 일본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이다. 서구문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평화주의자 톨스토이는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누구보다도 격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가였다. 이 글은 레닌의 톨스토이 전유를 배경으로 두고 일본 초기사회주의자의 톨

스토이 전유양상을 조명하였다. 합법적 정당을 추구했던 초기사회주의자들은 톨스토이의 사회개혁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나, 러일전쟁 후 제국주의적 팽창노선이 심화되고 정치활동의 자유도 갈수록 제한받는 강권정치가 확대되면서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는 체제변혁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되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뜰 무렵에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은 대역사건이라는 혹독한 탄압을 받아 침묵을 강요받았고, 이후 톨스토이 전유는 반문명, 반국가, 반전 등의 정신은 소거된 채 인생론을 설파하는 현인으로 한정된다.

이 네 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이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대응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네 편은 2014년 7월에 인문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1905년 러시아 혁명과 동아시아 담론 형성”에서 발표된 일부의 글이다. 이 네 편의 글을 포함하여 전체의 글을 모아놓으면 당시 1905년 러시아혁명이이라는 구체적 사건이 동아시아에 일으킨 파장의 연쇄와 시대의 변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체의 글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 혜 경

